

## 평양을 위한 원자력, 북한의 원자력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자

### Atoms for Pyongyang Let North Korea Have Peaceful Nuclear Power

Richard Rhodes, Michael Shellenberger

〈Foreign Affairs〉 May 23, 2017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초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북한과 협상 재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그런 “적절한 상황”이 실제로 조성될 수도 있을 것 같다.

#### 실패로 끝난 대북 전략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전임자들인 아버지 김정일

과 할아버지 김일성이 원하던 것과 같은 것을 바랄 뿐이라고 되풀이해 말했는데, 첫째는 북한이 또 다시 침공당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한국전쟁의 첫 해에 미국이 엄청난 전략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시킨 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을 대체해서 경제 개발에 사용할 전력이다.

이 두 가지가 1994년에 북한이 원전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제시한 요구사항이며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동의하였다.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실은 북한의 지도자도 잘 알고 있었다. 김정일은 2000년도에 남한의 신문 발행인에게 “우리 미사일은 미국까지 도달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미국이 천여 발의 미사일로 반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우리와 협상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일은 미사일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무기 대신 전기를 선택한 1994년도의 합의는 9.11 테러가 발생할 때까지는 지속되었다. 테러 발생 직후 부시 대통령은 이란 및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소위 악의 축으로 지명했고 결국 2년 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때 북한의 지도자는 이라크가 저지른 실수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핵무

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3년 후인 2006년도에 첫 번째 핵실험을 실행하게 된 것이다.

무리한 짓을 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미국 정부가 어리석은 짓을 한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대부분 이어 받았으나 결과는 더 좋지 않았다. 그 사이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거의 완성시킬만한 수준이 되었지만 전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불안정해서 북한 인민들은 여전히 굶핍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은 전기의 3분의 1을 원전으로부터 공급받는 남한의 밝은 불빛이 칠혹처럼 어두운 북한 땅에 여광을 드리우고 있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

미국 정부가 실패한 강경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이 어리석었다는 증거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다.

### 원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 약속이 북한에 핵위협 중단 명분 제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로 하여금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대형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확신만을 더 심어 줄 뿐인 것이다.

오히려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한 사실은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독재 정부에서 민주 정부로 바뀐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실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체제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없을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유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세습 권력의 승계자들이 권력에서 손을 떼기 바라는 대중의 인식이 고취되기 시작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지만 대통령 선출을 포함한 직접 선거를 허용하는 새 헌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1987년까지는 실제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였다.

그런데 1980년부터 1990년 사이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778달러에서 6,642달러로 거의 4배 가량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군사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보수적 매파들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원자력에 반대한 진보적 비둘기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카터 행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후진국들이 원전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같이 핵확산방지조약(NPT)이 조인된 이후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들이 원전의 전력 생산 능력을 늘리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나라들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려는 것도 막으려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했는데, 그 까닭은 재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플루토늄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NPT 참여 국가는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 조약에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원자로 연료로 쓰이는 수준의 플루토늄은 핵무기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도 그런 정책을 유지했던 것이다.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제3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양극단의 정책을 타파하고 드디어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란 정책 비전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

‘Atoms for Peace’는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5개월 뒤에 아이젠하워대통령이 UN총회에서 그 개요를 밝힌 정책이다. 아이젠하워는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만한 긴장 상황을 완화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전직 장성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원자력을 평화적 용도로 개발해 “전 세계 에너지궁핍 지역에 전력을 풍족하게 공급하자.”고 촉구하였다.



그에 따라 미국은 1957년 설립된 UN 산하기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연구용 원자로와 그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한편 무기 제조급 핵물질에 대한 감시 체제를 유지했다.

### ‘Atoms for Peace’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에 적용, 계속 확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인 언사를 놓고 볼 때 그가 북한이라는 은둔 국가와 쉽사리 협상을 시도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이라크 침공 정책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수시로 비판하면서도 원전산업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출의 잠재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재생에너지와 싼 가격을 앞세운 천연가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원전산업은 지금도 살아남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같은 공화당 출신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성공으로 이끌어낸 소련과의 협정 덕분에 미국과 러시아는 1960년대 후반에 보유하던 작전용 핵탄두 30,000여개를 지금 1,500개까지 줄이게 되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 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

**Richard Rhodes** : 풀리처상을 받은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저자

**Michael Shellenberger** : ‘Environmental Progress’ 회장

#### <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는 1922년에 창간된 이래 미국의 대외 정책, 외교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이끌어오면서 선도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매체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 문제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초당파적 비영리 회원제 기구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